

천상의 하모니 박물관 물들인다

광주박물관, 아카펠라 그룹 '캐비닛 밴드' 23일 무료공연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가 박물관을 물들인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23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캐비닛 밴드'를 초청해 '아카펠라로 듣는 하모니'를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결성된 아카펠라 그룹 캐비닛 밴드는 '보컬아시아 페스티벌 in Taiwan', 일본 전국 아카펠라 '아마나시 대회' 한국 초청 공연 등 다수 공연을 했으며, 캐비닛 밴드만의 색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아트 위주의 팸을 주로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 '나성에 가면',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뽀로로와 울퉁이송', '악기소리 퍼포먼스' 등 10여 곡을 들려준다. 또 '함께 부르는 아카펠라'에서는 라이온킹의 OST 'The Lion Sleeps tonight'도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선착순 3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570-701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경 이야기' 디지털 복원판 상영

광주극장 23일

오즈 야스지로 감독은 전 세계 영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그의 대표작 '동경 이야기' (1953)는 영국 영화 전문지 'Sight&Sound'가 10년마다 실시하는 설문 조사에서 최근 감독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 1위에 선정됐다.



영화 '동경 이야기' 특별 상영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상영되는 디지털 복원판은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돼 선명한 화면과 사운드로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 상영은 '동경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최근 개봉작 아마다 요시 감독의 '동경 가족' 상영과 맞춰 마련됐다.

'동경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결혼 후 도쿄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노부부가 상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88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치” 배제... 지역과 소통하는 비엔날레 돼야

대안공간 '미테-우그로'·'공간 힘' 비엔날레 포럼

소통 부재·폐쇄성에 지역 작가들도 외면
'지역 작가 쿼터제' 민원해결 미봉책 불과
재단, 지역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해야

광주비엔날레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19일 오후 2시 광주대안예술시장 웰컴센터 '대인스토리'에서 홍성담 작가 '세월오월' 전시 유보 사태 등 2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보는 자리가 열렸다.

대인시장에 있는 창작공간 '미테-우그로'와 부산 팔도시장에 자리한 '공간 힘'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역사적 비엔날레: 발굴하고 묻기 그리고 살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시, 재단 등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최초로 여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초 두 공간이 최근 펴낸 미술문화계 간지 'POST' 창간 기념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최근 사태와 맞물려 광주비엔날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이명훈 예술공간 돈키호테 큐레이터는 그동안 안티비엔날레, 최민 감독 해임, 신정아 사태 그리고 최근 홍성담 작품 사태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겪어오면서도 정상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홍성담 사태의 책임은 모두 광주시에 있다"며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에서 광주시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주

시가 정치적으로 광주비엔날레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과의 소통 부재와 폐쇄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인 예술총감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희 미테-우그로 큐레이터는 "지역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의 소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면 재단에서는 작가 참여 비율이 8%나 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하지만 누가 얼마나 참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이 작가들의 플랫폼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큐레이터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역에 있는 작가들조차도 타지의 시선으로 광주비엔날레를 바라보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선 6기 광주시장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지역 작가 쿼터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작가들은 지역 작가 쿼터제는 재단과 지역의 소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재단 내



창작공간 '미테-우그로'와 부산 창작공간 '공간 힘'은 19일 오후 대인시장에서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지역 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또 재단이 지역의 기획자들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신호은 작가는 "재단에 있는 지역 인재들이 성장하면 외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인의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전시에 스며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비엔날레가 생기면서 현대미술이 광주에 소개되고 실험미술이 늘어나는 등 광주미술이 다양화됐다"며 "이사진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행사 준비 과정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방향으로 비엔날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교필 대안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총감독은 "그동안 비엔날레에서는 외부

인들이 와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거나 실험을 해보고 나가는 곳 정도가 됐다"며 "수년 전부터 지역 차원에서 지역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비엔날레가 민과 관,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예술과 축제, 예향과 의향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도 표출됐다.

박경섭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는 "광주비엔날레는 이 4가지 축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관과 국제주의, 예향과 예술이라는 한쪽만 강조해왔다"며 "향후 광주비엔날레가 어떻게든 개혁을 하겠지만 공공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성을 강조해 민으로 치우칠지 명확한 모델을 가지고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땅끝 마을서 인문학 산책

22일 녹우당서 KBS '이주향의...' 공개방송
이덕일·박은순씨, 윤두서·윤선도 작품 조명

'땅 끝 마을 해남에서 인문학정신을 찾는다.'

방송의 날 51주년을 맞아 KBS1라디오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PD 민노형·월~토 밤 11시10분~11시55분)은 오는 22일 오후 5시~7시30분 해남 고산 윤선도 유적지 녹우당 사랑채 앞마당에서 '땅 끝의 인문학정신'을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공재 윤두서' 연구에 있어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박은순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의 강의로 그림을 연다. 박 교수는 '새로운 시대를 그리는 창의적 인본 정신'을 주제로 당시



이주향씨



이덕일씨

주류를 이루던 중국풍의 관념적인 그림 세계에서 벗어나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던 공재의 작품세계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서민들의 빛 문서를 태워 빛을 탐감해준 일화, 천문과 지리뿐 아니라 의학

지지도와 '일본여도' 등 지도 제작, 천연두 치료법과 예방법 고안한 실학자 공재 윤두서의 면모도 함께 살펴본다.

이어 '정도전과 그의 시대',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등 다수의 역사 베스트셀러를 낸 역사저술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 소장은 유튜브에서의 고통을 또 다른 성과로 매듭지었던 이들의 선비정신과 시대정신을 되새겨 본다.

이날 공개방송은 9월3~4일 밤 11시10분 KBS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 문의 02-781-372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한마당
23일 송산유원지서

'안녕하지 못한 시절' 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학을 매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는 23일(오전 11시~오후 5시) 광산구 송산유원지에서 2014년 여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기성회원, 신입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이 참여해 음식나누기, 체육행사, 레크레이션, 회원간 친목 도모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나눈다.

지난달 곡성에서 펼쳐진 '섬진강문화학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작가회의는 이번 회원 한마당 행사를 통해 창작의식을 고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참가비 2만원.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모집 사업설명회

○ 신청기간 : 2014. 8. 26(화) 까지
○ 신청문의 : 010-5600-0232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무료체험 7일
무이자10개월

음식물 싱크대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무료사용 후 결정 국내산 100% 합법!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 환경부(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 KBS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061) 245-2457 (전국 설치)